

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표
단 일행 →



韓 日 中

기생충 관리 대책회의<上>

參加記

元 容 福

기협 본부 조사연구과장

83년도 한·일·중 기생충대책회의에 관하여는 전호에서 일본참가기를 게재한 바 있다.

동 대책회의는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와 自由中國(대만)을 순방하며 각국의 기생충관리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견문을 넓히는 순서로 이어졌다.

대만연수에는 충북지부 崔益鉉 국

장과 보사부 李光秀 사무관, 부산지부 金秉燮 과장, 그리고 필자 등 4명이 우리 나라에서의 연수를 마친 일본의 國井涉 사무국장 외 5명, 대만대표 4명과 같이 7월 23일 김포공항을 떠났다.

台北의 中正국제공항에 내리자 台灣省 전염병연구소의 曾栢村 소장과 여러 직원이 우리를 맞아 주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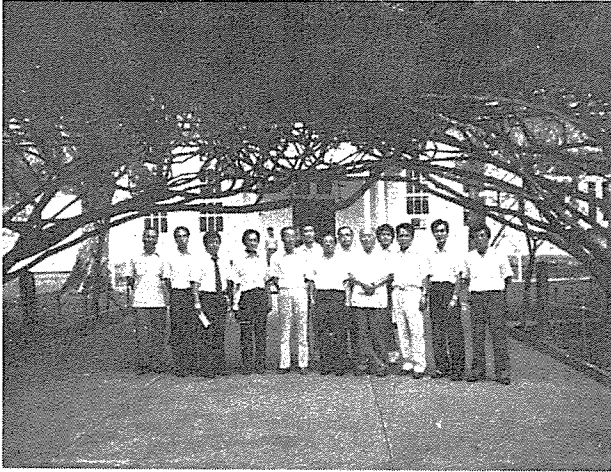


사진 : 筆 者

韓·日·中 대표
← 전원과 기념촬영

짜여진 일정에 따라 연수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방문한 기관은 주로 정부의 각급보건행정기관으로서 방문순서는 달랏지만 행정원(중앙정부) 위생서, 대만성위생처, 台北시위생국, 南投縣 위생국, 桃園縣의 復興鄉 위생소와 그 관내의 羅浮村이란 山村의 위생실과 寄生虫防治會 등이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전염병연구소의 직원 3명이 시종 정성껏 편의를 보여주었는데 필자는 李松玉 技士와 많은 대화를 가졌다.

첫번째 방문한 곳이 대만중부지방의 南投縣이었다. 이곳은 대만의 여러 현중에서 바다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우리 나라의 충북과 같음) 산이 많아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며 호수, 온천, 폭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吳敦義 현장과 翁榮和 위생국장의 환영인사가 있는 후 보건현황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의 기생충 관리는 70년대초에 검사하지않고 전원 투약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가 75년에 집단검진으로 전환한이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검사방법과 검사횟수, 투약방법, 구충제의 종류 등 모든 절차와 발전과정이 우리를 답습하고 있었으나 82년도 2 학기의 회충감염률은 1.45%로서 우리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었다.

이는 그들이 채소를 생식하지 않는 식습성때문에 재감염이 잘 안되기 때문이었다. 또 일본가족계획국제협력기구(JOICFP)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과 용인에서 현재 8

년째 계속중에 있다.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든 대화는 일본어가 사용되었다. 50대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유창하고, 젊은 세대들도 일본어를 곧잘 하고있어 어느곳에서나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을 정도였다. 회의실에는 고 蔣介石총통과 國父로 추앙을 받고있는 孫文선생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두 위인의 사진은 관청 외에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어 이분들이 이 나라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대만에서 中正·中山이란 호칭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中正국제공항이라던가 中正기념관, 中正路 등이다. 이것은 고 장총통의 字이고 中山은 손문선생의 號로서 中山路, 中山樓 등을 볼 수 있었다.

땃현장이 아주 젊고 패기가 있어 보였으므로 李기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民選현장이라 한다.

그는 제도상 縣民과의 유대에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공사간에 몹시 바쁜 듯했다.

다음에는 대만성위생처를 방문하였다. 처장의 인사가 있는 후 劉尚修 副處長으로부터 보건행정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처장은 환영사에서 한·일·중 3개국의 기생충대책회의가 금후에도 계속되어 공동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

다.

이에 앞서 國井씨는 南投縣 방문시에 동 대책회의가 일본 笠川(사사가와) 재단의 자금형편상 부득이 금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아쉬운 인사말을 했고 방문하는 모든 기관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의사이며 국민대회대표이기도한 劉부처장으로부터 인구문제를 비롯하여 모자보건 환경오염, 성인병, 무의촌진료, 급만성전염병관리 등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경제적여건과 상황이 비슷한 우리의 현실과 유사한 것 같았다.

다음날은 桃園縣의 復興鄉 위생소를 방문하였다. 鄉이란 우리 나라의 郡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이다. 同縣의 張承基 위생국장이 이곳까지 와서 우리 일행을 맞아주었다.

이 분은 3년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필자가 안내한 일이 있어 매우 반가워 했다. 歐鴻鏞 주임(소장 격이고 의사임)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은 산간벽지가 되어 가난하고 위생면에서도 낙후된 지방이었으나 근년에 이르러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보건분야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원주민이 산다는 羅浮村이란 산촌의 위생실을 찾아갔더니 약사 1명과 간호원 1명이 상주하여 있었고 의사는 위생소에서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한다고 한다.

의사가 공직을 원치 않고 開業醫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무의촌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었으나 우리 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의사가 공직에 참여하고 있는 듯했다. 또 처녀들이 돈을 벌고자 도시로 진출하는 바람에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워져서 조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웃은 일이 있는데 무작정 상경하는 젊은이들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과 견주어 보기도 했다. 또 山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뱀이었다. 열대지방의 우거진 산림에는 뱀이 많은데 특히 코브라는 독성이 강하여 물린 후 1시간이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대만의 명물로 알려진 夜市場에 가면 뱀을 즐겨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코브라의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독사 잡으려다 물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급대책으로 구호차를 대기시켜 놓고 사고연락을 받으면 구호반과 환자가 양쪽에서 신속히 이동하여 중간지점에서 만나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행정원 위생사에서 중화민국전반에 대한 보건대책에 관하여 슬라이드로 설명을 들었다.

우리 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며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우리를 경쟁상대국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台北市 위생국에서는 魏登賢국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들었다. 도시의 기생충 감염률

이 농촌보다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이곳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肝吸虫에 관하여 물어 보았더니 20 여종의 중간숙주가 있으며 감염률은 현재 조사중이라는 대답이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간흡충관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간 적절한 구충제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프라지퀸텔제제의 약효시험을 실시했고 금년부터 정부에서 치료사업에 착수했다는 것과 동 약제를 우리 나라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용화 되었다고 하자 일동은 감탄하는 표정이었으며 이제부터 서둘러 구충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寄生虫防治會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이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같은 기능을 가진 민간보건의단체이다. 周啓度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은뒤 현황설명을 들었다.

周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기생충관리에 있어 일보 앞서있는 두 나라가 적극 협력해 줄 것과 3개국이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가자고 했다.

대만이 우리와 다른 점은 재단법인으로서 정부의 각급 보건기관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였다.

〈계속〉

